

글 이원규(미내사 클럽 대표)

그림 한정우(현재 학습만화와 명상만화를 작업중, 행복한 만화를 화두삼아 '호시우보란' 팀으로 작업중)

전과 6. 비룡재천



재천(在天)이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지 못하는 동물이라면 하늘에 오를 수 없듯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르렀다 하더라도 즉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비룡이란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갖춘 용이란 말입니다. 용은 다스리는 덕이 있는 존재이고 더욱이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의식적으로 날 수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날 수 있는 것이지요. 의식적으로 난다는 것은 애써야 날 수 있는 것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반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것은 거의 힘이 들지 않으며, 그의 제2의 본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새끼 독수리가 날려고 발로 차며 날개짓하여 뛰어보는 것이 의식적으로 날아보려는 것이라면, 이제 전혀 애쓰지 않고도 바람을 가르며 무한 창공을 유유히 나는 것이 어른 독수리인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의식적 유능(有能)과 무의식적 유능이라는 용어로 이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도로에서 킥박스도 켜지 않고 끼어듭니다. 이때 즉시 자신도 모르게 화가 올라온다면 이는 무의식적 무능함입니다. 자신이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 의식도 되지 않고 멈출 수도 당연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한다면 이는 의식적 무능이라 합니다. 알지만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요.



다음으로, 자동 발현되는 분노를 일으키는 자신의 신념에서 한발 물러서서,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라며, 올라오는 분노를 참아내는 것이 의식적 유능입니다. 의식적으로 참아내기는 하지만 여전히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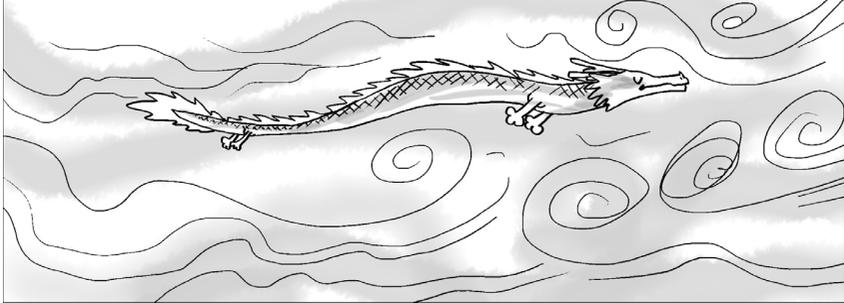
이제 좀더 나아가면, 그 분노가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돼'라고 믿는 자신의 마음 때문임이 자동으로 통찰되고, 그 생각을 믿는 마음이 저절로 내려놓아지거나, 또는 그 분노의 뿌리에는 '그와 나'를 분리시키는 분열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음을 한번 크게 통찰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분노가 저절로 나오지 않거나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 상태로 무의식적 유능이라 합니다. 그는 오직 분노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뿐입니다.



비룡재천의 비룡은 바로 이런 무의식적 유능의 상태에 있는 이입니다. 지난 호에서 소개된 구사(九四)의 흑야재연(或躍在淵)의 약룡(躍龍: 뛰는 용이 나르려고 애쓰며 뛰어보는 상태)의 의식적 유능이었다면, 비룡(飛龍)은 힘들이지 않고 날 수 있는 무의식적 유능의 상태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땅을 기준으로 비유를 들어볼 때, 지하(地下)가 무의식적 무능이라면 지상에 접해있는 것은 무의식적 유능, 지상에 잠깐 잠깐 떠났는 것은 의식적 유능, 하늘을 유유히 나는 것은 무의식적 유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대성괘의 다섯 번째 효는 왕의 자리로 여섯 개의 효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자리입니다. 비룡은 무의식적 유능의 상태이고, 특히나 그런 비룡이 만상을 다스리는 위치인 '하늘'에 처해있으니 최고의 덕으로 최고의 통치를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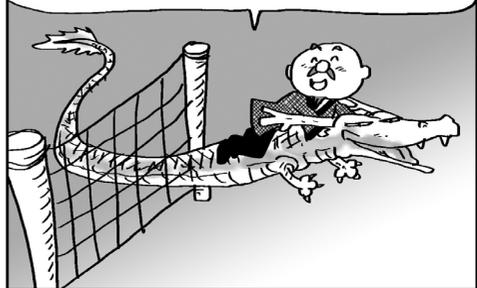
이런 무의식적 유능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인 신념들이 나타나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한발 물러서 있을 수 있는 통찰이 있는 이만이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쌓여있는 무의식적 신념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끌림과 저항에 대해 '개의치 않을 수 있음'을 얻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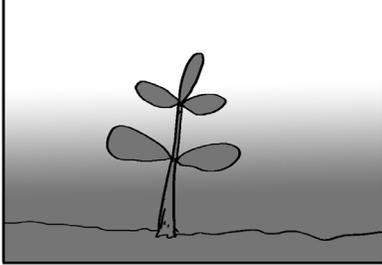
이제 비룡은 어떤 신념의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로우므로 지상에서 유용한 신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상의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는 이견대인(利見大人)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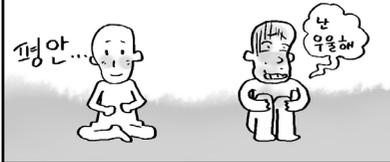
비룡은 지상의 대인(大人)과 상호감응(同聲相應, 同氣相求)하고 끌리어 그들의 신념을 사용하며 지상을 다스려 나갑니다. 이것을 주역에서는 “물은 습한 데로 흐르고, 불은 마른 데로 나아간다(水流濕, 火就燥)”라 하였습니다.



즉 물과 불의 특성을 잘 쓴다는 말입니다. 물과 불이 보이는 특성이 바로 습한 기운(濕氣)과 마른 기운(燥氣)이며, 그 기운을 통해 습기로 대지를 적시어 싹을 틔우고, 짙짙한 햇빛으로 왕성하게 성장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울과 평안, 열정과 분노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적절한 자극이 있고 거기에 안정적인 반응을 하며 평화로운 것이 평안의 상태라면, 너무 가라앉아 아무런 자극도 없고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으며 무기력한 상태가 우울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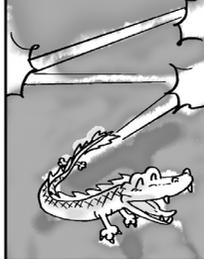
그에 반해 활발한 활동력이 있고 생명의 힘이 잘 사용되는 것이 열정이라면, 너무 과도히 에너지가 한곳으로 몰려 주변은 보이지 않고 터져나온다면 그것은 분노일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가라앉은 상태에도 우울과 평안이라는 두 가지가 있고, 에너지가 떠있는 상태에도 열정과 분노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비룡은 평안과 열정이라는 적절한 에너지 발현상태를 사용합니다. 감정은 내면에서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 흐름을 부정적이라 해서 '차단'하고 없애려만 한다면 그는 에너지가 사라진 적멸(寂滅)의 세계로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적 신념에서 자유로워진 자가 평안과 열정이라는 대인(大人)의 에너지 흐름을 타는 것이 바로 비룡재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다음호에 계속)